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개요

### 지속가능 개발 관점에서 바라본 무형문화유산 보호 개념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개념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무런 유보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잠재적 갈등 요소와 논쟁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공동체의 존재를 전체로 한다. 민족-국가가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등재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보호를 위한 압력 행사와 재정 지원의 제공도 이루어진다. 국가 또는 민족-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언제든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간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며 또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주체도 바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문화적 과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는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때로는 당혹스럽게도 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높은 인간 개발 수준을 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연자원을 대량 사용하거나 환경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부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이미 위험에 처한 특정 자원을 사용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생활방식을 보존한다는 문제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인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 관광이다. 문화관광은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관광은 무형문화유산의 상업화와 변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인 당진 줄다리기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면밀히 살펴보면, 당진 줄다리기는 '문화유산은 본래 그 기원이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업적 이유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진 줄다리기는 무형문화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해당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장병들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점점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 I. 서론

회의 주최측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나의 첫 반응은 거부는 아니었으나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주저하면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취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이미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형평성, 환경에 대한 책임, 경제적 생존이라는 여러 목표들 사이의 조화와 조정”(Nurse 2006)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대치되는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청중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을 초래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였다.

그런데 점차 이러한 상황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발표내용이 핵심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유일한 조건만 제외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과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기도 했다.

이것이 내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다. 문화인류학자로서 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보존한다고 하는 관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를 위하여 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process)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문제

처음 주어진 제목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무형문화유산 보존 개념” 이었다. 나중에야 오늘 회의의 원래 개념이 단순히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속가능한’과 ‘개발’ 사이에 ‘인간’이라는 단어의 추가는 우리가 개발에 대해 생각할 때, 세 배는 더 비판적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 세 단계 걸쳐서 또는 삼차원에 걸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는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 발전이라는 통념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단계 역시 친숙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는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현재 세대가 겪고 있는 계급 분화, 그리고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 세대에 속하는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재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슴과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신봉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보호와 인간육구의 충족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원칙의 제시보다는 절충과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 빚어내는 역동적이면서, 종종 당혹스러울 정도로 갈등적인 관계에 직면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인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대량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목표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상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심지어는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인간 개발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관련 지역 공동체의 인간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특정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정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인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욕망과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개인의 선택과 경력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특정 개인과 단체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조치는 터무니 없이 큰 혜택을 제공하거나 관계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고사시키는 독점적이며 경직된 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치는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시켜, 무형문화유산의 향후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것들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모방하려는 지나치게 열정적이며 과도된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무형문화유산의 생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키우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국가의 지원과 인센티브에 더욱 의존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개념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여거나 아무런 유보 없이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단지 일부 무형문화유산에서 성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전통이라는 이유로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바로 그 개념 자체가 잠재적 갈등 요소와 논쟁 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인류, 개인, 단체, 지역 공동체의 존재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III. 인적 요인 : 공동체의 존속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내포된 의미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많은 민족-국가들이 국가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국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체계의 확립뿐 아니라 선택적 압력 행사, 특정한 개발 경로의 제공, 보조금 및 인센티브의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 또는 민족-국가는 적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자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개입할 태세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와 전문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형문화유산 자체가 아니라 개인, 집단,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이다. 이러한 개념은 문화적 과정의 본질을 드러낸다.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관계는 역동적이면서 종종 당혹스럽게도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인간 개발 수준을 달성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자연자원을 대량 활용하거나 환경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개발과 환경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추구라는 열망 자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레잡이와 같은 일부 무형문화유산은 이미 절멸 위기에 처한 자원을 착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어떤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를 선택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엄청난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따라서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거나 소멸할 수 밖에 없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외부인들이 - 정부, 관료, 학자, 또는 전문가들이 - 어떤 문화유산을 보호할지(또는 하지 않을지) 결정함으로써 타자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만일 어떤 특정한 개인, 집단 또는 지역 공동체를 지속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이는 동시에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개인, 집단 또는 지역 공동체는 소멸되도록 내버려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지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다른 무형문화유산들은 절멸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과 그들 삶의 방식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위협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목록 등제, 직접 보조금의 지급, 기타 경제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이라는 영향력이 행사된다.

#### IV. 상업적 전환 : 당진 줄다리기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관광은 갈수록 시장의 힘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유지할 수단을 찾는 지역공동체와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성공 및 모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학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수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화유산에게 문화관광이야말로 마치 구명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혹시 문화관광이 상업화와 변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문화유산이 그 생명과 의미를 잃고 변질과 타락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다. 관광객들은 장례식, 결혼식, 생일파티, 신년축하 행사, 추수감사절 같이 다양한 의례들의 특정 부분이나 장면들이 동일한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연출되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고 있던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인류학자가 문화관광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을 다룬 인류학 문헌은, 여러 민족과 지역공동체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의식 및 연행과 관련된 일정, 공연 빈도, 공연의 길이, 공연 장소, 재료, 의복, 참여자 등을 수정해야 했을 때 겪은 한심한 상황과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다수 보고하고 있다.

어떤 변화는 항상 반가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견딜 만했지만, 일부 개인과 집단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상처 받고 분노했다. 이들은 그러한 변화가 해당 의식이나 연행의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지 않을까 심히 우려했다.

상품화와 상업화는 아마도 현 상황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

용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상품화와 상업화를 한탄하는 이가 비단 학자들만은 아니다. 정부 관료와 다른 전문가들도 대부분 문화적 성과를 상품화·상업화하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무형문화유산이란 파괴적이고 오염을 야기하는 상품화·상업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유산 중에는 상품 생산과 상거래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 발전한 것도 있다. 비록 자본주의적인 생산 및 유통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전통 사회에서도 시장과 상거래를 위한 생산 활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필자가 이제부터 언급하고자 하는 당진의 줄다리기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 문화유산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상업적인 이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문화관광의 사례들에 대해 상업화되어 변질되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가할 때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것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행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관행과 좋지 못한 관행이 있을 뿐이다.

당진 지역의 줄다리기는 1982년 한국 정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제 당진 시청과 지역 주민들은 이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2년 6월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다국적 공동등재에 관한 특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이 협의회에서 선보일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당진 줄다리기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어느 민속학자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다. 그 글에는 당진 줄다리기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견해가 나와 있었지만 대체로 모두가 이 지역 줄다리기가 시작된 공식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즉, 이 전통은 오래 전에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촌락과 마을을 파괴하여 당진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지신을 위무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이었다. '줄다리기 축제 기간' 동안 유교 의례와 무속 의례가 함께 치러지는 이유도 이런 기원 때문이라 한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생존하거나 사망한 옛 참가자 다수가 확인해준 기록과 기억 자료였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근 농촌 마을 주민들이 재로(벚짚)를 대고 나무로 만든 전통 줄틀을 사용해 실제 밧줄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으며, 밧줄 꼬기 작업이 끝난 뒤에는 다음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줄틀을 틀못에 보관했다. 이렇게 다른 마을 사람들이 밧줄을 만드는 한편, 당진 읍내의 상인들은 쌀이나 돈을 기부했다.

거대한 밧줄을 꼬는 작업은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완성된 밧줄은 몇 군데 다른 장

소로 운반된 후 마지막으로 고개를 넘어 실제 줄다리기 행사가 열리는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다. 커다란 밧줄을 고개 너머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으며, 이 지방의 여러 마을과 촌락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이 장관을 구경하면서 고갯길로 밧줄을 끌고 가는 장정들을 응원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다. 힘들게 수고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밧줄을 시험장까지 나른 뒤에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

실제 줄다리기 시험은 순식간에 끝났다. 승자와 패자가 선언되면 몰려있던 군중들은 서둘러 밧줄 있는 곳으로 달려가 밧줄을 조금씩 잘라서 집으로 가져갔다. 그것을 집에 걸어두면 제액을 물리치고 집안에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주며 그것을 다린 물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윗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오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온 나라가 평화롭다는 말이 있었던 걸로 보아 줄다리기에서 줄을 당기는 이들은 승패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듯하다.

그보다 사람들은 다같이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진 주민들에게 있어 멀고 가까운 다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그야말로 반가운 일이었음에 분명했다. 당진은 해운업과 상업 분야에서 긴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다. 여관의 주인이나 식당 주인을 포함한 크고 작은 상인들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호황을 누렸을 테고, 먼 곳까지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인파를 끌어와 최대한 크고 성공적인, 기억에 남을만한 축제행사로 만들었을 것이다.

당진 줄다리기는 시작부터 그렇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한국 전통 사회의 상업주의적 정신 안에서 발전하며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통 사회에서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위 “순수한” 제의나 행사가 아니다. 오히려 당진 지역 상인들이 사람들을 끌어와 사업을 흥하게 하고 당진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의식적으로 기획하여 조직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곳 시정부가 4년에 한 번씩 치르던 이 행사의 빈도를 연 1회로 늘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당진 줄다리기가 여행자들의 일정표에 연례 행사로 자리잡음으로써 당진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시 정부가 충청남도의 대학생들과 이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장병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조직화하는 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 관광객들이 직접 줄다리기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로부터 내려오던 당진 줄다리기의 정신을 더욱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맺음말

만일 개인, 집단 및 지역 공동체가말로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지속시킬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주체라면, 이들은 그 과정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거나 문화유산을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결정이 여러 요인과 여건들을 충분히 숙고한 결과라면 그것 또한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존중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 집단 및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유산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비상업적인 방법을 택하든 상품화 및/또는 상업화의 길을 택하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도덕적 지원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여러 여건과 요소를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상업화되었다고 하여 문화적 전통이 변질되었다거나 진정성을 잃었다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문화는 변하게 마련이므로, 무형문화유산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보호한다거나 관련 지역 공동체를 지속 및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저 개인과 집단, 지역 공동체가 모든 요소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존속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